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50호 현대불교

29

2011년 8월 24일(음 7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왜 그렇게 습에 얽매어서 자유스럽지 못하십니까!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런데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더라도 한 몸을 가지고 여러 얼굴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금방 남편이 됐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금방 아들이 됐다 사위가 되고 아, 몸 하나에 몇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형상으로 해 놓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 길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동방에 아축이요 서방에 아미타요, 이 사바세계에 관세음요 지전국에 지장요, 물에서는 용신요 흙에서는 지신요, 땅이 길게 해 달라고 하는 칠성이요, 여러분이 다 칠성이예요. 육근에 마음이 하나 들어서 칠성이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칠성판을 한다고 그러죠. 잘난 애들이면 '이, 칠성이 참 잘 생겼구나. 칠성관이 참 좋구나.' 이러죠.

이 모두를 연구하고 생각해 봐서 모두를 알아야, 인간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수레 굴레바퀴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무명의 굴레를 벗어날 겁니다. 아미,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릴 때에 쳇바퀴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아니 하고 여러분이 마음의 발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입니다. 마음이 잘 지혜롭게 나간다면 부처고 망종으로 나간다면 바로 마구니입니다. 아수라장이 되죠.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원이 되고 본원이 되고 공부해 나가면서 체험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세계생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력의 자유를 얻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데 관습에 걸리고 습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수억겁을 거쳐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화해서 이렇게 인간까지 오는데 짐승은 안 돼 봤겠습니까, 그 어떤 별래는 안 돼 봤겠습니까. 어떠한 미물의 짐승은 안 돼 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구르면서 쫓기고 쫓으면서 먹고 먹으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나와서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한마디 할 것은, 여러분이 꿈을 꿔다가 이사를 간다거나 집을 짓는다는가

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든가, 안 좋은 조짐이 생긴다거나 어떤 느낌이 온다거나 이렇더라... 마음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뭐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제가끔 가지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하고 일어나고 가라앉고 합니다. 우주의 섭류가 다 이렇게 일어났다 가라앉고 가라앉았다 일어나고 합니다. 별성의 모든 것도, 은하계의 모든 것도 말입니다. 어떠한 혹성도 달도 태양도, 그 모두가 작용하는 것이 인간의 작용과 같습니다.

마음이 모든 작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본, 이 자체가 영원한 씨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있는 건데 그 습으로 인

해 얽매어서 살아요. '아이고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어느 방향에 손이 있다더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올해는 삼재가 들어서 물에도 갈 수가 없고 뭐 어디고 다 조심해 해야 한다더라.' 이런 습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이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했습니까? 나쁘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좋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쁘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스님! 집을 지어야 할 텐데 구랑신이 내렸답니다. 집을 못 짓겠는데요." 이런 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당신이 태어나고부터 이 세상이 있고 집도 짓는 거지 누가 구랑신이 내렸다고 못 짓게 하던가? 구랑신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구랑신을 내리게 하는 거다. 그러니

네 마음이 구랑신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귀신이야! 네 마음이 귀신 노릇을 하니 어찌 귀신이 안 텨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네 마음이 귀신이 아니라면 그대로 지을 것이고 네 마음이 바로 구랑신이라면 못 지을 것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해에 집을 짓고도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잘 지었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마음 하나에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으로 발발발발 떨면서 삼재가 들었으니까 부적을 해다 붙여야지, 또 물어봐야지 하면서 온통 난리를 치고 또 살림을 해 나가면서도 잘못될까 봐 겁이 덜컥덜컥 나고, 꿈만 조금 잘못 꾀도 온통 난리가 나죠.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서 죽겠는 세상에 종교마저도 그렇게 허덕지덕 하고 괴로움이 많으니, 마음대로 살

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 그게 바로 감각이지요. 그게 바로 지옥이지 판 데 지옥이 있고 감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서 창살 없는 감각에다가 쳐넣어 놓고 신하대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만들어 놓는 것에 바로 귀신들이 있는 것이지 아니, 누굽니까? 누가 귀신을 만든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만들고 귀신을 섬기고 또 귀신한테 말리고 이러는 거죠. 하늘이나 땅이나 신하대지의 일체 만물만생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강요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시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삼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도 여러분이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너희 맘대로 하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알고 몸뚱이로 부딪치는 걸 알고, 육근 육신 육식을 다 알아서 모든 물질세계나 정신세계에 들어 아니게끔 다 돌아가면서 잘 생각을 해서 너에게 이익하도록 해라. 이익하도록 생각하지 이익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말라. 남을 이익하게 생각하면 내게 이익하게 돌아오고 내가 이익하게 생각하면 남도 이익하게 생각해 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하대지의 일체 만물만생이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돌아가는 이 마음이 그대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불국토가 될 것이고, 약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말세 말입니다. 말세가 된다고 소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의 화목을 지키고 마음의 계발을 숭상함으로써 마음의 발전을 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행이 벌어지지 않고 모든 애고가 벌어지지 않고, 유전성 영계성이 벌어지지 않게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진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감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이지 일체 만물만생이 내 스승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고 일체 만물만생의 아픔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 보지도 말고 낮게 보지도 말고 자기같이만 본다면 바로 우리가 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로 보지 않는 중용 말입니다.

조선조 때에 불교를 탄압해 가지고 생긴 기복

30면으로 계속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꿈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하던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살리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승(한글/영어)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자기 불성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29면에서 계속

이 개선했지 않고 내내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불국토는 커녕, 허허... 아마 우리의 삶의 타전을 잃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면 지구의 수명도 우리의 수명도, 태양의 수명도 은하계의 별성의 수명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도리를 알게 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현신입니다. 생각을 쉬고 놔둘 때는 부처인 것이고 한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법신인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서, 즉 말하지 않는 것, '네 속에서 아픈 것도 나온 거니까 네 속에서 낫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량과 지혜가 바로 법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바로 몸이 움직여지게 되니 보현신이자 화신이자 바로 응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자생중생들부터 제도를 해어만이라도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하게 되면서 제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중에 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여러분이 성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화를 내게도 하고 '배고프다, 좀 빨리 가져오나라.' 하면 입으로 넣기도 해야 돼요. '나는 요런 게 부족하니까 요런 걸 달라.' 그리고 '채소가 부족하니까 채소 달라.' 하면 채소를 빨리빨리 요리해서 먹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시장에 나가서 빨리빨리 사다가 해 먹고 또 한 가정에 잘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야! 요런 거를 잘 먹더라.' 하고 사다 드리죠? 그것이 그분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의, 그분 속의 모든 생명들이 내가 요런 게 부족하니까 요런 걸 좀 도와'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맛있고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의 마음 의식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많은데 어찌 여러분이 '여러분' 이라고 그냥 '나' 라고 하나로 결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얘긴데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까 하고 지난번부터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데 말입니다. 몸의 내부에 있는 의식들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선행을 했는지 그대로, 입력된 그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라고저라고가 없어요. 그러니 똑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 나온 데다가 되돌으면서, 되입력을 하면서 거기다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으면 벌써 그것은 입력

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노래가 좋아서 카세트에다가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다 알고 나니까 그 노래는 이제 그만 한물이 갔죠. 그래서 새로,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노래를 또 녹음을 하려니까 테이프가 아까워요. 돈을 주고 또 사지니 뭐하고 그러니까 그 테이프를 가지고 또 녹음을 하게 되면 앞서 노래 넣었던 거는 다 없어지고 새로이 노래가 입력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살림살이가 모두 천차만별이죠. 달다가도 이런 게 다치고 달다가도 요런 생각이 나고, 달다가도 요런 행이 나오고, 그 요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요상한 거죠. 요상하기 때문에 부처죠. 요상하기 때문에 법신이고요. 요상하기 때문에 굴레를 벗어날 수도 있고, 아주 벗어나지 못하게 지옥에 꼭 잡혀서 나오지도 못하게끔 되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이라고저라고 그럴 새가

인이다. 주인이자 공했다. 마음이 고정된 것이 없고, 마음먹는 것도 마음을 하나만 갖는 것도 아니다. 아니, 한 가지 마음만 쓰고 삼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했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공체입니다. 공체! 내면에서도 공체요 외부에서도 공체입니다. 그리고 공성이요 공용이요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바로 그 자체인데 내가 있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가 했던 말을 하지 마라. 왼손으로 할 때 오른손이 몰라야 하고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몰라야 하느니라. 그 도리를 알아. 네가 혼자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느니라. 네가 죽어 나를 보지 죽지 않으면 너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

그렇게 말고!" 하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렴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고 벌떡처럼 일어나면서, 그냥 몸을 가누지를 못하면서 일어나서 물으니까 "흥! 내가 없으니 말아야."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없으니 말아야.' 이 소릴 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옛날에 선지식들이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쓰셨나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물리적인 문제를 알뜰히 알려 주고 이해를 시켜서 모든 거를 놓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모두 물질세계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도무지 신칭도 안 하고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히! 요 몸속에도 내가 많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소리를 할 수 없다.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그러니 내가 없

드를 빼 놓고 아무리 거기다 말을 해 보세요, 상대방이 들을 수 있나! 전화 코드를 끼우고서 말을 해야 상대가 들을 수 있죠? 그렇듯이 내 속을 빼 놓고는 절대로 일체제불이나 일체 만물의 그 모든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양 무제가 말마 대사더러 "그렇게 많은 시주를 하고 많은 보시를 했는데 얼마나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넌 공덕 될 일 하나도 한 게 없느니라." 했더니 약사발을 안겨서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는데 죽은 사이가 없어! 달마 대사는 지금까지도 죽지 않았어요. 부처님도 지금까지도 죽지 않았고 여러분도, 그때 당시에 있던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한 찰나에 모습을 갈아서 나오고 한 찰나에 모습을 갈아서 또 나오고 이럴 뿐입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태어나고 이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어디 따로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 따로 있고 멸함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냥 영원하게 돌아갈 뿐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그대로 영원히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수명이 짧으니 기니 합니다.

물론 수명이 짧고 길고 있고, 사람의 수명은 좀 긴가 하면 어떤 짐승의 수명은 짧고 그렇죠. 그것도 그래요. 하지만 사람의 수명보다 지구의 수명이 더 긴가? 또는 산천초목의 수명이 더 긴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수명이 길고 짧고 이런 도리가 막상 모두가 평등하게 돌아갈 때는 내 마음이 수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불국토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두를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은 나쁘게 하는 일이 없고 남한테 해롭게 하는 일이 없고, 이익하게 하는 그런 일밖에 안 합니다.

만약에 나쁘게 하고 마음 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꾸 달아나간다면 달아나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만두지 않으면 부러지니까요. 내버려 두서 막다른 골목까지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했지 억지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것도 법 살리는 것도 법, 죽이는 것도 건지는 거요 살리는 것도 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여러분처럼 학식이 많고 이렇다면 아주 이쁘게 다듬어서 말을 잘해 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쁘게 다듬을 줄을 몰라요. 허허...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이 소리지만 진실한 소리로 아시고 실체 보고 이리신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위 문은 1993년 8월 22일 국내지원위원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지구의 수명도 우리의 수명도, 태양의 수명도 은하계의 별성의 수명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도리를 알게 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현신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와 나무를 떼려야 뗄 수 없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근본과 지금 육체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푸르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 송장이나니까요. 그러니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자기 불성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아이구, 아리송해서 모르겠어. 도대체 주인공이라는 게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한다면 자기 더러 자기가 욕을 하는 거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자체입니다. 간장이나 위장이나 방광이나 콩팥이나 척추, 척추나 심장이나 모두가, 눈 가는 데 귀 가듯이 귀 가는 데 입 가듯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데 아니, 주인공이 아닌 나까? (동그라미를 그려 보시며) 공했다 이거죠. 너 나가 없이 그냥, 아까도 없고 지금도 없이 돌아간다 해서 '공이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사람이 생겼으니까 주

숨을 하셨습니다. "애들아" "에." "너희들 오늘 서부터는 모든 곡기를 끊어라. 음식을 하나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하나도 먹지 말겠다고 하루 종일 굶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이지 머리가 영 안 돌아가는 거죠. 허허하... "음식을 아주 영원토록 먹지 마라." 이랬거든요.

아, 그랬는데 머리가 영 안 돌아가잖아요. 먹는 사이 없이 먹는다면, 내면에서나 외부에서나 그런 줄 안다면 먹는 사이 없이 먹게 되죠. 공식(供食)이니까요. 그런데도 그 머리가 안 돌아가니 굶어서 그냥 쓰러지더라. 모두들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니까 또 "먹지 말고도 육체가 죽지 않는 법을 알아라." 하셨단 말입니다. 육체를 안 죽이려니 먹어야 하긴 하겠고, 허허하... 먹는 사이 없이 먹으리니 도대체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서로 입을 대고 이야기를 해 봐도 이거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한 사람이 드러누웠다 가 착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아무렴 아무렴,

지 내가 먹은 사이가 어디 있고 내가 준 사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그렇게 깨닫고 본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즉 '여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름은 각각일지언정 어찌 뜻이야 각각 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절대 어떠한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솟구치는 울음이 나오더라도 '주인공! 너와 같이 울고 있잖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같이 붙들고 울지언정 바깥으로 쫓달리면서 울지 마세요! 바깥으로 찾지 마세요! 바깥으로 구걸하지 마세요! 바깥으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범당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그 형상이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 돌로 보지 않는 마음, 항상 동글게 돌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면, 바빠서 일 배를 하더라도 천 배가 될 것이고, 일 배를 하더라도 삼 배를 하더라도 만 배가 될 것이고, 삼만 배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통신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전화하는 데 전화 코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운장대 연등



용주사 LED 연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 등

